내 옆자리엔 AI면접관:혼자서도 완성하는 취업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할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 꿈은 비행하는 동안 승객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전하고, 비행이 끝난 후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객실승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공뿐만 아니라 외국어 역량과 면접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영어를 대화하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어와 표현을 외워도 막상 영어로 대답하려고 하면 어떤 문장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문장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면접은 단순히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영어 회화 수업을 듣거나 대화상대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말한 영어가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ChatGPT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AI를 단순히 질문에 답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영어 회화 파트너이자 취업 면접관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 생각에서 AI활용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습니다.

ChatGPT를 활용할 때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질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영어 표현을 물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와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객실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ChatGPT가 영어 회화 파트너와 항공사 면접관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의 영어 회화 파트너야. 나는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이야.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싶지만, 아직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나에게 쉬운 영어로 질문하고, 내가 영어로 대답하면 문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알려 줘. 더 자연스러운 표현도 제안해 줘. 한 번에 질문은 하나씩 해 주고,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줘. 설명은 한국어로 해 줘.”

“너는 항공사 객실승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영어 면접관이야. 실제 영어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을 하나씩 해 줘. 내가 영어로 답변하면 문법, 어휘, 자연스러움, 답변의 논리성을 기준으로 피드백해 줘. 내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개선 방향을 알려 주되, 내가 실제로 겪지 않은 경험을 임의로 만들어 주지는 마. 피드백 후에는 내가 다시 답변할 기회를 줘.”

이처럼 AI에게 역할과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단순한 영어 검색을 넘어 목적에 맞는 연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영어를 연습하고 싶을 때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틀린 표현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활용법: 일상 속에서 영어로 말하는 습관 만들기

처음부터 어려운 영어 면접 질문에 도전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부터 연습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거나, 여행지에서 길을 묻거나,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해외 카페의 직원이고 나는 손님이야. 영어로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을 연습하자. 실제 대화처럼 영어로 한 문장씩 질문해 줘. 내가 대답하면 어색한 표현을 알려 주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연습하게 해 줘.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 줘.”

예를 들어 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AI: Hi!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Me: I want an iced latte, please.

AI 피드백: 의미는 충분히 전달돼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주문하려면 “I’d like an iced latte, pleas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Me: I’d like an iced latte, please.

이 대화는 활용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연습에서는 제가 자주 틀리는 표현이나 말하기 어려운 문장을 기록해 두고,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해 보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AI가 제안한 표현을 직접 다시 말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활용해 보아야 실제 대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직접 말할 수 있는 문장부터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활용법: ChatGPT를 객실승무원 영어 면접관으로 활용하기

일상 영어 연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객실승무원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객실승무원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협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영어로 답변해야 한다면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활용해 면접 연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 Why do you want to become a cabin crew member?
* How would you handle a difficult customer?
* What is your greatest strength?
* How would you respond to an unexpected situation during a flight?

“객실승무원 영어 면접을 연습하고 싶어. 실제 면접처럼 영어 질문을 하나씩 해 줘. 내가 답변하면 문법, 자연스러움, 논리성, 직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피드백해 줘. 어려운 표현을 무조건 사용하는 대신, 내가 실제 면접에서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줘. 답변을 대신 완성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수정하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연습하면 질문을 읽고 답을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문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변을 구성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객실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답변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질문에는 단순히 “I am kind.”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했던 경험이나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안하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을 만들고 AI의 피드백을 활용해 다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 AI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기

AI를 활용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AI가 만들어 준 문장이 항상 나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전문적인 표현이라도 제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가 많다면 실제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제안한 답변이 저의 경험이나 생각과 다르다면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먼저 스스로 답변하기

영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과 경험을 먼저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찾습니다.

2단계. AI에게 피드백 요청하기

문법 오류, 어색한 표현, 부족한 설명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단순히 정답을 요청하는 대신 왜 수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단계. 나에게 맞는 표현으로 수정하기

AI가 제안한 표현 중 실제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추가합니다.

4단계. 수정한 답변으로 다시 연습하기

수정한 문장을 직접 말해 보고, 같은 질문에 다시 답변합니다. 이전 답변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AI가 단순히 답변을 대신 작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도록 돕는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하려면 한 번에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10분 학습 루틴을 구성했습니다.

2분:오늘의 질문 확인
3분:영어로 답변하기
3분:피드백 및 수정
2분:다시 답변하기

이 루틴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예시이고 개인의 영어 수준과 일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새로운 표현을 많이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틀렸던 표현을 오늘 다시 사용해 보고, 이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자기소개, 화요일에는 지원 동기, 수요일에는 고객 응대 상황처럼 주제를 나누어 연습하면 취업 준비와 영어 학습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AI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첫째, AI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어 연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화 상대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질문과 답변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둘째, 개인의 목표에 맞는 연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화뿐만 아니라 객실승무원 면접, 호텔 고객 응대, 공항 안내 등 진로와 관련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스스로 수정하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데서 벗어나 표현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피드백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AI와의 대화만으로 실제 면접에서 필요한 모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긴장한 상황에서도 말하는 능력, 표정과 태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능력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 검토하기: AI가 알려 준 표현과 설명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 나답게 수정하기: 실제 경험과 생각에 맞게 답변 구성하기
* 직접 말하기: 화면 속 문장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소리 내어 연습하기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무조건 정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I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저절로 향상되거나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시작하기 어려웠던 연습을 보다 쉽게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객실승무원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영어 표현부터 직무 관련 질문까지 조금씩 연습하고, 제가 자주 틀리는 표현과 개선할 부분을 기록하며 학습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히 AI가 만들어 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과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젠가 실제 영어 면접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제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AI가 제 꿈을 대신 이루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옆자리의 AI 면접관과 함께 한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일상 속 작은 AI 활용 경험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는 순간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